

지역 소식통

김제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농번기와 휴가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누적 치명률이 18.7%에 해당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잠진드기에 물린 후 발생하며 38°C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식욕부진, 심할 경우 혈액검사 상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수칙으로는 ▲야외활동 전 모자, 긴팔, 긴 바지, 등산화,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안감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의류, 신발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야외에서는 돗자리 등 깔고 앉기, ▲외출 후 의류 세탁·사워하기 등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채납자 가택수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채납자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지난 14일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연초부터 관리해 온 1천만원 이상 고액채납자들 중 본인 및 가족들의 보유 재산 현황을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납부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은닉 및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채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으로 최종 선정, 추진했다. 이날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및 명품시계, 명품 가방 등 동산 20점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압류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감정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 합동 공매를 통해 채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채납세금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채납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활동을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 본격

김제시, 전국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 개최

김제시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김제지원순환센터(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800-1)에서 우분 고체연료의 이용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기관과 함께 전국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



김제시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김제지원순환센터에서 전국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부지사 등과 더불어 환경부, 국립축산과학원, 전북지방환경청, 농협중앙회, SGC에너지(주), OCI SE(주), 한화에너지(주) 등 주요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실증 기념식으로 지난 3월에 정부로부터 신기술을 승인받은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및 판매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됐다.

시는 이날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원순환센터에서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시는 우분 고체 연료화사업을 통해 관내에서 발생하는 1일 17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43톤의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6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 삭감부담 확대로 인해 김제시 개발행위 허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을 통해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철저 당부

확대간부회의서 침수 취약지 점검 등 예방 강조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장마에 대비해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17일 유 군수는 확대간부회의의 열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지 점검과 비상대응



17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확대간부회의의 열고 장마에 대비해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완주군 중앙도서관, 내달 23일부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17일 완주군은 내달 23일부터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도서관은 매년 여름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여름과 환경을 주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우고 실천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연령별로 △어린이 인형극·환경지킴이 별주부 △독도와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인미란 작가와의 만남' △성인 프로그램 '순바느질

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비상근무인력 배치와 연락망 현행화 등 비상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험징후 발견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주민 사전대피 안내 등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전반기 마무리와 하반기 업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한 유 군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핵심사업 등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각 부서 소관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과 18일 예정된 개원의 집단휴전에 대비해 의료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삼봉 신도시 중학교 신설 환영”

유희태 완주군수 “적극 협력해 성공적으로 설립 이끌 것”

유희태 완주군수의 공약인 '삼봉신도시 중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17일 서거석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을 밝힌 것에 대해 유 군수는 특단의 결단에 대해 깊은 감사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교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그동안 삼봉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해왔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완주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도 삼봉지구 유입 학생, 통학여건, 해당 학구 내 학생 배치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했다.

특히, 유 군수는 서 교육감과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해 "삼봉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은 완주군의 중요한 현안으로 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 차원에서 중학교 신설이 화급을 다루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적극 건의해 왔다. 현재 삼봉지구는 9,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학생들은 4km 이상 떨어진 삼례중학교로 등교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유 군수는 "삼봉 중학교 설립을 위해 안호영 국회의원과 도의회,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이어 삼봉중학교 신설까지 확정되면서 완주군의 교육 인프라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학교 설립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숲&아이 생태놀이터·유아숲 체험원 조성 완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일대에서 길거리를 찾는 여가 트렌드의 변화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도시공원에 가족단위로 놀이와 생태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시는 첫 스타트로 도시에 위치한 김산근린공원에 조성된 놀이공간에 '숲&아이 생태놀이터'와 '유아숲 체험원'을 지난 14일 조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에서의 가벼운 산책과 운동의 기능에 더해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 기구와 체험장을 설치하며 시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신한 것이다.

우선 '숲&아이 생태놀이터'는 김산근린공원에 주변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층을 고려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밧줄놀이대, 질러인, 모래놀이대, 언덕놀이대, 데크놀이대 설치하고 이와 함께 스마트도서관, 야외무대, 세족시설, 휴식공간 등 공원이 용역 및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유아숲 체험원'은 앞서 김산근린공원에 조성한 힐링정원수와 연계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놀이·배움의 장'을 테마로, 숲체험놀이시설, 숲속교실, 통나무오르기, 생태체험시설 등을 설치해 아이들의 심리안정과 자연감수성, 사회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영글방울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사업'도 추진해 오는 2025년까지 조성완료해 걸음마를 시작한 유아부터 어린이들까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도시공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